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서

결혼식은 서로 다른 남녀의 결합인 결혼을 모두 모여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경건하고 엄숙한 식입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서양식으로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턱시도를 입습니다. 식을 행하는 순서는 주례사가 주례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신랑신부는 결혼의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신부가 부케를 던지면 신부친구 중 한명이 그 부케를 받습니다. 이때 부케를 받는 사람은 곧 결혼하게 된다는 말이(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입니다. 물론 전통 결혼식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결혼식도 보통사람(남들)과 달리 독특한 방식으로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식장이 아닌 대학 캠퍼스, 야외의 조용한 곳, 공원, 유람선 안 등, 색다른 장소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참된 의의는 식을 어떻게 치르는가 보다는 부부됨의 맹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양만 사치스러운 결혼식이 많은 요즘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식의 진정한 의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모두 모여서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이 모두 끝나면 신혼여행을 갑니다.

모든 결혼식이 중요하지만 나와 관계되는 사람의 결혼식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둘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정해야 합니다.